마술사 오창현의 매직 콘서트

'꿈의 대화' 15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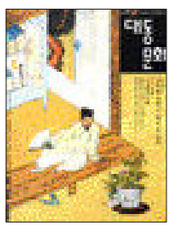
주목받고 있는 젊은 마술사 오창현의 매직 콘서트'꿈의 대화'가 15일 오후3시,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 오씨는 비둘기 마술, 마술사가 되고 싶어하는 꼬마 관객과 함께 진행하는 'fly child', 긴박감을 더해주는 탈출마술 등을 선보인다.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스토리가 있는 일루젼 마술. 1960년대 실존했던 천재 사기꾼 프랭크 에버그네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Catch me if you can'과 소설과 뮤지컬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지킬 앤 하이드'가 마술로 새롭게 탄생한다. 전석 2만원, 4인 가족 패키지 6만원. 문의 062-550-20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예계간지 '대동문화' 여름호



문예계간지 '대동문화' 2006년 여름호(통권 38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서는 '문화수도 예술자원은 있는가'의 기획 시리즈로 문화기획 특집 '남종화 예맥이 끊기고 있다'를 실었다. 원로 한국화가 김형수· 박행보· 문장호· 허달재씨 등이 참여해 호남 남종화의 현재적 의의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서양화가 박주하 씨의 작품세계를 다룬 '화필따라 길따라'와 고려청자의 비색을 재현한 도공 조기정 선생을 만나 그의 외길 인생을 소개했다. 문의 062-461-1500

피서지서 가 볼만한 특별한 미술관

무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떠나는 여행길에 잠시 지역 미술관을 찾는 것은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광주 전남 곳곳에는 평소 찾아가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특별한 미술관들이 많다.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영암군 신북면에 위치한 아천미술관 전경

고흥 남포미술관에서 전시중인 전뢰진 작 '누나하고 나하고'.

고흥 남포미술관-국내 대표작 109점

보성 백민미술관-해외미술상설전

곡성 옥과미술관-옛선비들 간찰전

영암 아천미술관-'가족유물관'

▲**고흥 남포 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 특별전이 오는 16일까지 열린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화, 회화, 조각, 판화, 공예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 109점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삶의 여유', '재현으로서 자연', '일상의 향기', '마음으로의 여행' 등 5가지 주제로 열린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1-832-0003.

▲**보성군립 백민미술관**=미술관으로서 드물게 해외 작가들의 전용 공간인 국제관을 갖고 있다. 러시아 성화와 하바로스크의 원조 화가인 비소스키 뫄시리 니꼴라 예위츠의 작품을 비롯 중국, 일본, 프랑스, 그리스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 4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오지호, 류경채, 손재형 등 서양화, 한국화 대가들의 작품도 볼 수 있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1-853-0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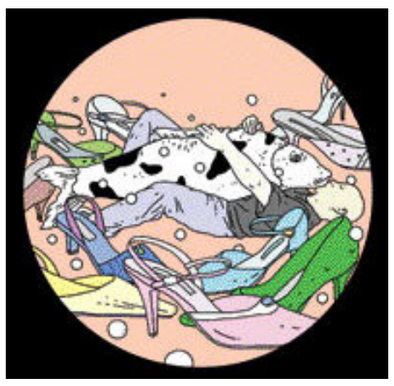
▲**곡성 옥과 미술관**=옛 선비들의 편지인 간찰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장(5천570점)하고 있는 미술관이다. 추사 김정희, 미수 허목, 김홍집 등 선인들의 간찰 150점이 전시돼 있다. 조상들의 유려한 필체와 생활상, 진솔한 감정을 접할 수 있다.

1층 전시관에서는 '국휴일(국경일과 휴일)' 전시가 9월13일까지 열린다. 한글날, 광복절, 개천절 등을 주제로한 설치미술에 사진을 응용한 작품이 전시된다. 입장료는 어른 500원, 어린이·청소년 200~300원. 문의 061-363-7278

▲**영암 아천미술관**=개인의 가족사를 보여주는 '가족 유물관'이라는 이색전시관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아천미술관을 설립한 유수택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5대조 등 가족들의 유품들을 모아 전시하고 있다. 식구들의 때묻은 유품도 모아두면 훌륭한 전시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전시실에서는 회화 100여점과 조각 등 소장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1-471-1107

▲**대전 시립 미술관**=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표현주의 미술의 거장인 조르주 루오 특별전이 27일까지 열린다. '베로니카', '성안', '미제레레', '파란 피에로' 등 대표작 224점이 선보인다. 입장료는 성인 1만원, 청소년 8천원. 문의 042-602-320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동물과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탕마오홍의 애니메이션 작품.

한·중 교류 참가 탕마오홍 창작의 결실

SUNDAY展 20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한·중 작가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해 광주에서 작업했던 중국 작가 탕마오홍(唐茂宏·32)씨가 창작의 결실을 선보이는 전시회(SUNDAY전)를 갖는다. 2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중국 상하이 출신인 탕마오홍씨는 중국 현대 미술을 이끄는 대표적인 작가군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는 젊은 작가. 그는 광주시립미술관과 중국 듀올런 현대미술관의 작가 교류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광주시 북구 양산동 창작스튜디오에서 작업했다.

작업을 결산하는 이 전시에서 그는 중국의 전통과 현대, 급변하는 중국사회와 중국민들의 욕망에 대한 풍자를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선보인다.

풍부한 상상력을 작품에 구현하는 그는 '토끼', '물고기' 등을 초현실적인 화면처리로 선보인 데 이어 '여성', '남성' 등을 통해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중국인들의 자화상을 그렸다. 이 작품들은 오는 9월에 열리는 싱가포르 비엔날레에 출품된다.

그가 작품 속에서 즐겨 사용하는 성적인 표현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환상적이고 마법적인 상상의 세계를 통해 인간들의 헛된 욕망을 비웃고 있다는 해석을 낳기도 한다.

탕마오홍씨는 "애니메이션은 이미지를 다루는 데 적합할 뿐 아니라, 작가의 느낌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작업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2대 미술학원 가운데 한 곳인 중국 미술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한 뒤 현재 퍼포먼스, 설치, 애니메이션 작업을 펼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